

葬式やお見舞いに関する比較

今回1グループでは葬儀でのマナーやお見舞いに行く時に持っていくものやそのお返しに何を持っていくのか話し合いました。

葬儀での服装

日本：通夜は、元々はきちんとした喪服を着用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逆に喪服では、亡くなるのを待って喪服を準備していたようだとされ、喪服以外の地味な服装であれば通夜に出席しても構わない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しかし最近では通夜だけで弔問を済ませ、葬儀には出席しない人も増えたため、喪服で通夜が多くなっています。

韓国：日本と同じ黒の喪服でアクセサリーは身につけてはいけません。もしアクセサリーを身につけていたら、外してバックなどに保管します。

中国：日本や韓国と違い服装に決まりはありません。赤以外は大丈夫のようです。

葬儀の場所

日本：葬儀場で行う家庭が一般的ですが、家で行う家庭もあります。

韓国：日本と同じく葬儀場で行うのが一般的なのですが、家で行う場合もあります。葬儀場で行う場合、病院に葬儀場があり病院内で行うこともあります。

中国：日本と同じで葬儀場や家で行います。地域によっては火葬しないでそのまま土に埋葬するそうです。

お見舞いに持っていくもの

日本：花や果物、お菓子、飲み物（ジュース、栄養ドリンク）などを持って行きます。花は鉢植えのものや匂いの強いもの縁起の悪いものは持つて行ってはいけません（ゆり、バラ、椿、シクラメン、菊など）。

韓国：飲み物や果物を持って行き、花は持っていないないです。これは病室を一人で使うことがほとんどないので、同じ病室のアレルギーを持った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で、持つて行か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中国：主に果物を持って行き、花は持つて行かないそうです。

退院後のお返し

日本：ギフト品を買ってお礼に行きます。

韓国・中国：わざわざ品物を買ってお礼には行かないですが、お礼の電話をします。

今回の話し合いもお見舞いに行くことがなく、どんなことを話したらいいのかわかりませんでした。お葬式は滅多にあることではないので、特にわかりませんでした。授業中ビデオを見たり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一般的にはこうしているというのを見て、自分たちならこうするというように考えて話し合いました。こうした話し合いで母国の中らなかつた文化も学べて良かったです。

梅津春菜 加藤凪沙 金井茂樹 笹森美玖 夏双双 金殷美 姜順好 李臣鎬

葬式

- 服装
 - (ア)日本：黒い服、学生は制服
 - (イ)中国：派手じやないシンプルな服、家族は白い服
 - (ウ)韓国：黒い服しかだめ
- 香典
 - (ア)日本：2万～10万円
 - (イ)中国：2千～1万円
 - (ウ)韓国：5千～1万円
- 費用
 - (ア)日本：200万円
 - (イ)中国：70万円
 - (ウ)韓国：50万円
- 方法
 - (ア)日本、中国、韓国：火葬

お見舞い

- 持って行く物
 - (ア)日本：花、お菓子、果物、お金(3千～1万円くらい)
 - (イ)韓国：缶ジュース、果物
 - (ウ)中国：お菓子、果物、ドリンク、お金（5千円くらい）

コメント

- 最近日本では火葬した後バルーン葬や海洋散骨などをします
- 菊は人が亡くなった時に持つて行く花だからダメ
- お見舞いのものは病院の近くで売っている

お見舞い行こうと思ったらお葬式だと？

我々3グループはお見舞いに行こうと思っていたらそれがお葬式の参加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話し合ってみました。

お見舞いの際何を持っていく？

- ✓ 日本 : 花
- ✓ 中国 : 花、果物
- ✓ 韓国 : 花、果物、飲み物（栄養ドリンクなど）、食べ物

*お見舞いの際日本はお金を渡すという事を聞いた韓国人もいれば日本人の中でお金を渡すという学生は一人もいない

お見舞いの際ふさわしい花は？

- ✓ 日本 : スイートピー
- ✓ 韓国 : 造花
- ✓ 中国 : カーネーション

*日本と韓国は今は花を持っていくことが少なくなってきたそう

日本では韓国や中国にはないお見舞いのお礼がある。その為お礼状を書く。

お葬式の場所、香典、雰囲気

日本と中国は葬儀場を借りる。韓国も借りるのは一緒だが病院に葬儀所があってそこを借りる。

日・中・韓3国も葬儀に行く時、金額はそれぞれだがお香典を用意する。

日本の葬儀は静かである半面、中国や韓国の葬儀は騒々しいそうだ。

我々の考え方

国に問わずお見舞いやお葬式等は少なければ少ないほどいいということは一緒。

櫻田香奈 菅沼望 矢ノ倉孝行 山井瑞稀 吉岡海咲
楊培元 楊培玉 キムユヨン チェンギ

장례식과 병문안에 관한 비교

이번에 저희 1 그룹에서는 장례식에서의 매너와 병문안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것과 그 답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장례식에서의 복장

일본 : 츠야(장례식장에서 죽은 이를 기리며 밤을 새는 것)는 이전에는 말끔한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복을 입는 것은, 죽는 것을 기다리며 상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여겨져, 상복 이외의 수수한 복장이면 츠야에 참석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츠야만으로 조문을 끝내고, 장례식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서, 상복으로 츠야를 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 일본과 같이 검은 상복으로 악세사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착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빼서 가방 등에 보관합니다.

중국 :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복장에 정해진 예절은 없습니다. 붉은색 이외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장례식의 장소

일본 : 장례식장에서 하는 가정이 일반적입니다만, 집에서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국 :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병원에 있어 병원에서 장례식까지 하기도 합니다

중국 :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지역에 따라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병문안에 가지고 가는 것

일본 : 꽃이나 과일, 과자, 음료수(쥬스, 영양드링크)등을 가지고 갑니다. 꽃은 화분이나 향기가 강한 것, 부정한 것은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백합, 장미, 동백, 시클라멘, 국화 등)

한국 : 음료수나 과일을 가지고 가며, 꽃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실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병실에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 과일을 주로 가져가고 꽃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원 후의 답례

일본 : 선물을 사서 가지고 갑니다.

한국, 중국 : 일부러 선물을 사서 인사를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만, 감사의 전화를 넣습니다.

이번 주제도 병문안을 갈 일이 거의 없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잘 몰라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수업 중에 비디오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서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런 수업으로 각기 모국의 몰랐던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메즈하루나 카토나기사 카나이시게키 사사모리미쿠 카소소 김은미 강순호 이신호

장례식

- 의복

(工) 일본 : 검정색 옷, 학생은 교복
(才) 중국 :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옷, 가족은 하얀색 옷
(カ) 한국 : 검정색 옷만 입는다

- 부조금

(キ) 일본 : 2 만~10 만엔
(ク) 중국 : 2 천~1 만엔
(ヶ) 한국 : 5 천~1 만엔

- 장례비용

(ア) 일본 : 200 만엔
(イ) 중국 : 70 만엔
(ウ) 한국 : 50 만엔

- 장례방법

(ア) 일본, 중국, 한국 : 화장

병문안

- 가지고가는 물건

(コ) 일본 : 꽃, 과자, 과일, 돈(3 천~1 만엔정도)
(サ) 한국 : 캔쥬스, 과일
(シ) 중국 : 과자, 과일, 음료수, 돈 (5 천엔정도)

코멘트

- 최근 일본에는 화장 후에 대형기구장 또는 해양산골장을 한다
- 국화와 사람이 죽었을때 가지고가는 꽃으로 안된다
- 병문안 할때는 병원 근처에서 판다

병문안 가려 했더니 장례식이라고?

저희 3 그룹은 병문안을 가려고 하다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병문안을 갈때 들고 가는것

한국 : 꽃, 과일, 음료수(에너지 드링크등), 음식(떡뽁이, 순대, 치킨, 김밥등)

중국 : 꽃, 과일

일본 : 꽃

병문안을 갈때 일본의 경우 돈을 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들은 한국인도 있는 반면에 병문안 가서 돈을 건낸다는 일본 학생은 없었다.

병문안을 갈때 가장 적절한 꽃은?

한국 : 조화

중국 : 카네이션

일본 : 스위트피(사향연리초)

한국과 일본은 병문안을 갈때 꽃을 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줄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병문안 답례가 있다. 그때문에 병문안 감사 인사장을 쓴다.

장례식장과 부조금, 그리고 장례식장의 분위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장례식장을 따로 빌린다. 한국도 장례식장을 빌리는 점은 같지만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 보통 병원의 장례식장을 빌린다.

한, 중, 일 세나라 모두 각각 부조금의 금액은 달라도 부조를 하는 것으로 조의를 표한다.

한국과 중국의 장례식은 조금 시끌벅적한 반면 일본의 장례식은 조용하다.

우리들의 생각

국적엔 관계없이 병문안이나 장례식은 적을수록 좋다.

사쿠라다 카나, 스가누마 노조미, 야노쿠라 타카유키, 최성기,
야마이 미즈키, 요시오카 미사키, 양배원, 양배옥, 김유영